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뽕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눈 한번 깜짝 앓고 自性佛에 놓고 관하면 그게 바로 문 두드리는 소리

다 리 구부리고 앉은 사람은 펴고 앉으세요.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말 같지만 누가 다리를 아프지 않게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뛰는 공부이며 실천하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쉽게 뛰어넘을 줄은 몰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재밌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재밌고 진실하게 들으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것이죠.

하고 가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되는 것이든 모두를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하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는 것도 내야' 하고 놓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놓으라고요.

거기에는 조금도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일체 만물에는 다 불성이 있거든요. 생명의 근본이 다 있거든요. 저 물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하찮은 미생물 하나에도 불성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놓고 '네가 있다면 하고 네가 없다면 못하고' 하고 말게 놓으면 됩니다. 진짜 거기서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급할 때에 마친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다 보살로 화해서 응신으로 화해요. 정히 굽하고 아주 큰 문처럼, 예를 들어 나라의 일이라든가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

“마음 먹기 달렸다고 쉽게 말하면서 쉽게 뛰어 넘을 줄은 몰라요”

그라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시간이 있어서 15분이고 얼마 동안이고 시간나는 대로 앉아서 좌선할 때는 반드시 '주인공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오직 그것만 관하라고요.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너만이 증명해 줄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곧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거절하지 말고 가는 것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는 걸 억지로 쫓아가면 그것은 욕심이 되고 오는 걸 자주 거절을 하는 것은 무능하게 되는 이치죠. 그러니까 오는 것을 마다하지도 말고 가는 것을 잡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오는 것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붙사하는데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단 하나 있다면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난 그게 아니죠. 내가 있다면 하고 없다면 그만 뒤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처가 있다면 할 것이 없고 내가 있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까? 불 들어온 걸 보고 불 나가는 걸 보고 전력이 와서 그렇잖아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진짜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보지 못하시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꿈이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어난다든가, 뭐 지구가 잘못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면, 저런 나무 하나도 그냥 있지 않고 모든 일체가 전부 한마음으로 모아서 응신이 돼 줍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꽃 한송이를 보고서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아파서 죽었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말이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그 꽃에다 살려달라고 매달렸겠어요. 물론 관했죠. 그랬더니 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예쁜 선녀가 꽃으로 장식을 했는데 그 꽃이 파리 하나하나를 떼어서 자기한테 붙여 주더라고요. 그 길로 병이 나아갔어요. 그럼 그게 꿈입니까? 이런 소리가 거짓말로 들리십니까?
력이 들어올 때, 그 전기가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 들어온 걸 보고 불 나가는 걸 보고 전력이 와서 그렇잖아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진짜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보지 못하시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꿈이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그림 · 최주현

든 지극하지 않은 간에 한번 내가 대답을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거지보다 진짜 이런 거짓을 한다면 그 거짓의 대가는 반드시 있게 되거든요. 그 얘길 듣고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보니까 많은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묘지에 있는 분들을 다 동원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위급할 때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전부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기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후에 일이 잘 됐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할 일만 하면 됐지 그 사람한테 고맙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남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고 또 무엇을 받으려고 하고, 주면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공부와는 어긋나는 것이죠. 평소에도 그냥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
일상 생활을 재료삼아 공부 하세요 좌선 입선 행선들이 아닙니다”

말고 그대로 하는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한마음의 도리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공부해야만 이 깊은 뜻을 알아들음지 모르겠지만 이 공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성이 수 억겁을 통해서 형성되게 한 장본인이요. 그리고 진화시켜서 어떻게까지 이끌고 왔어요. 그러나 얼마나 소중한 보배입니까. 꼭 알아야 돼요. 못났든지 잘났든지 말이에요. 한 생 살아나 가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모습, 주어진 삶, 주어진 어려움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항거를 할까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모두 그렇게 잘못 행한 것에 대한 결과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항상 말하죠. 이 정수에 정수불이 있는데 그 정수불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라고요.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 새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앞서 한 건 없어요. 아주 쉽게 가르치는 얘기도, 관하면 거기에 입력되면서 앞서의 입력은 자꾸 지워져 버려지니까 소멸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든지 관하는 그 당시에, 바로 무명의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그러나 이 마음공부라는 게 참 위대하고 말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동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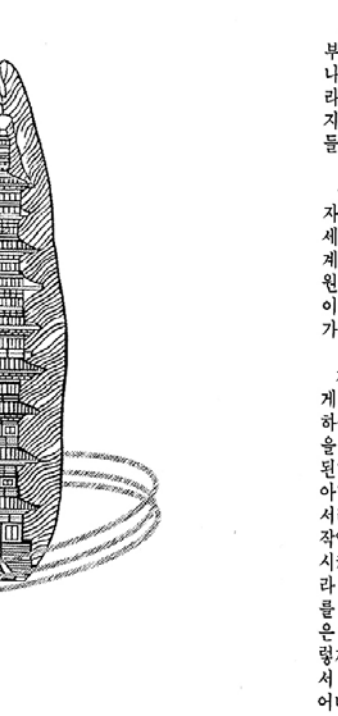
생활 속의 불교 204

‘나’ 하나 죽는다면 계율은 절로 다 떨어진다.

더러우면 닦고 흐트러져 있으면 가다듬고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게 계행이니 생활 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계율 아닌 것이 없다.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행하며 사는 것이 계행이다.
부처님의 계율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가 본 뜻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많이 하다 보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용도와 분수에 따라서 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오게만 해도 '하지 말라'로 일관되어 있지만 요점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살상하지 말라'를 '평정한 자비심으로 생명을 사랑하라'로, '도둑질 하지 말라'를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어라'로, '사음하지 말라'를 '몸과 마음으로 청정행을 닦아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를 '진실만 말하고 신뢰를 지켜라'로, '술 마시지 말라'를 '연제나 밝고 바른 지혜를 가져라'로 해 놓으니까 계율이란 안 함으로써 지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뜻을 받아 행해서 지키는 것이 된다. 근본 마음이 청정하고 바르면 따르이 세울 게 없다.
계율을 세우려면 2백50개가 아니라 수 천 개도 세울 수 있다. 세상 전체가 계율 아닌 게 어디 있는가. 문제는 걸로 세워 놓은 계율이 아니라 근본 마음이다. 가령 남을 조급이라도 해롭게 하는 행을 한다

면 계율을 범한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한 번 일으켰다면 그것 또한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든 계율이 한군데서 나오 드는 걸 알면 계율이 몇 개든 전체 계율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모른다면 전체 계율에 다 어긋나는 것이다. 2백50개, 3백48개다 할 것이 없이 전체가 계율이니 한마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
계율은 주어지면 짐이다. 그러나 일체 계율을 다 근본주체에 놓아 가면 구태에 계율의 자리 제지 않아도 저절로 계율이 지켜진다. 그때의 계율은 자유의 날개이다. 계율에 자기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계율이 우리나오도록 하라.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구태에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사성제니 십이인연이니 따지지 않더라도 계율을 다 지킬 수 있고 더불어 다 같이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일이 따져서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소리를 다 해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면 복잡해서 언제 자기를 알 수 있게 되겠는가. 그러기에 이론 따지고, 경전 따지고, 학식 따지고, 출고 그를 따지고 할 사이 없이 '곧바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다.

중생인 나를 못 미더워 한 나머지 나를 부정하며 계율을 얹어 매기보다는, 부처인 나의 근본을 믿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라. 그것이야말로 계율을 초월하여 계율을 지키는 공경의 방법이다. 본래 부처인 우리들은 자신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본법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공부이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계정계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계정계가 새로운 굴레가 되어 부자유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주객이 뒤바뀐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계율이 이리하고 청규가 이리하니 이렇게 해야만 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계율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계율을 다 놓은 사람이 진실로 계율을 지키게 된다. 그렇다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인연 줄이 얽히고 실킨 데서 일어 서려면 먼저 관념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가 아니라 상대와 때와 장소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나온다. 그때에 다시 굴러서 되놓고 또 놓고 가면 바로 굴레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아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



니, 따라서 남이 주는 계율에 매이기 전에 먼저 안으로 놓는 작업부터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직접 들어가는 순리이다.
마음으로부터 계율이 우리나오려면 모든 경계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누구로부터 까닭 없이 한대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 안으로 굴러서 녹여야 한다. 그때야 자연스런 계율이 우리나오는 것이다. 고로 마음밖에서는 인욕이 이미 인욕이 아니다. 그것은 참는 게 아니라 이미 '참을 것도 없음'이다. 그렇게 크나큰 마음, 대장부의 마음으로써 세상을 보아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불법의 생활화인 것이다.
원통을 벗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자재로이 통 안팎을 들고 날 수가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걸림이 없다. 그러나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는 통 안의 이치로 보고 듣고 행동하고 느끼고 하니 걸림이 많다. 따라서 계가 걸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귀에 거슬러 그로 하여금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 제아무리 계 언덕을 넘나든다 해도 일체는 개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돌아가므로 모르는 사람에게 죄업을 지어 주어서는 안된다.

협찬: 한 마음